

# 사부대중 한마음으로 '동체대비'

## '대한민국의 아픔' 불자들 함께 나누다

지난 4월 16일 벌어진 세월호 참사. 총체적 시스템 부실로 빚어진 인재였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분노했고 아파했고 눈물을 흘렸다.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었다.

이번 참사 현장에는 불교가 있었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주요 종단 소속 사찰과 심인당들은 사고 직후인 4월 17일부터 '진도 여객선 실종자 무사 생활' 기도를 시작했다.

조계종은 가장 먼저 구호대를 현장에 급파해 상황을 파악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아름다운동행은 4월 17일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대'를 진도 팽목항으로 파견했다. 봉사대는 현장에서 사고지원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진도 사암연합회와 진도 항적사(주지 법일) 봉사단과 함께 팽목항에 부스를 설치해 차와 식사를 제공하는 등 현장 지원 활동을 펼쳤다.

조계종 중정 진제 스님을 비롯해 백양사, 대흥사 등 호남 지역 본사 주지 스님과 중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4월 19일 조계사에서 열린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을 발원하는 108배 행사에서 시민들이 촛불로 '기다릴게'라는 염원을 그려넣고 있다.



진도 팽목항에 설치된 조계종 긴급구호단 부스에서 지역 사찰 봉사자들과 활동가들이 과일과 떡을 준비하고 있다.

## 사고 직후 현장 내려가 실종자 가족·유족 위로 주요 종단 사찰들 일제히 무사귀환 기원·슬픔 달래

양종회의원 스님 등도 현장을 찾아 실종자 가족을 위로했고, 해남 마항사는 떡을 지어 실종자 가족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조계종과 태고종은 현장에 천막 법당과 이동식 법당을 각각 설치하고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기도에도 들어갔다. 모두 실의에 빠진 실종자, 희생자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진도사암연합회 회장 진현 스님(진도 쌍계사 주지)은 "현재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불교신자들이 많다"면서 "현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비롯해, 대흥사를 비롯한 지역 사찰의 불자들이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다. 무사귀환을 바라는 불자들이 마음을 모아 배 안에 있을 아이들이 부모 품으로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고 상황을 전했다.

서울에서도 진도 여객선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염원하는 촛불이 켜지고 노란 리본들이 걸리기 시작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4월 19일 조계사에서 불자 및 일반시민 1500여명이 참석



주요종단 지도자들이 4월 23일 청계천 전통등 전시 개막 점등에서 실종자의 무사귀환과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한 가운데 진도 여객선 실종자 무사귀환을 발원하는 108배를 봉했다. 대웅전 앞에는 촛불로 '기다릴게'라는 문구를 그려 넣어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오늘 여러분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는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진도 여객선 사고의 안타까움을 함께하러 와주셨다"며 "이번 사고를 통해 다시 한 번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다. 아이들이 어서 부모님들의 품으로 돌아



SNS와 인터넷에도 '노란 리본'으로 무사귀환을 위한 기원을 이어가고 있고, 불교계는 '노란 연등'을 제작해 동참 중이다.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고를 당한 분들과 가족들의 고통, 희망과 함께하자"고 말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기원문을 낭독한 엄봉숙 씨(조계종 자원봉사단)는 "온 국민이 가슴을 저미는 슬픔에 잠긴 가운데 품도 많고 고민도 많았을 아이들이 저 차가운 남쪽바다 한가운데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두려움과 슬픔이 아닌 마음의 평화가 가족분들에게 자리하고 목숨을 걸고 구

조작업에 임하는 구조요원에게도 힘과 용기, 지체가 깎여 최대한 많은 이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해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서울 청계천에 불축을 알리는 전통 장엄 등 전시회의 시작과 함께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노란 리본이 청계천 난간에 걸렸다.

4월 23일 첫 점등을 한 제 7회 청계천 전통등전시회는 진도여객선 침몰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분위기로 시작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준광 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회정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은 노란 리본에 기원 문구를 적은 후 합장하고 기도 후 리본을 달았다.

청계천에 전시된 전통 장엄등을 살핀 주요 종단 지도자들은 무사생활과 추모 촛불 기원 행사도 참가해 시민들과 함께 기원의 촛불을 켜다.

불교계 최대 축제인 부처님오신날 연등회는 추모와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행사로 전환됐다. 연희단 율동과 노래는 취소되고 대신 희생자들을 위한 천수경 독경과 석가모니불 정경, 실종자 생활을 기원하는 축원

## 연등회 축제 대신 '에도' 전환 국민의 슬픔 나누고 염원 담아 군승이 제작한 '노란 연등' 달기 SNS 통해 급속 확산 '눈길'

으로 이뤄졌고 국민과 슬픔,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상생하는 공동체를 발원하는 기원문들이 발표됐다.

이번 연등회에 대해 부처님오신날 불축 위원회는 "올해에는 불자와 국민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기원의 장으로서 슬픔에 빠진 국민들을 위한 연등회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은 4월 24일 세월호 희생자를 위해 KBS 부산방송총국을 통해 1억원을 전달하는 등 후원금과 물품 지원도 잇따르고 있다.

제능기부도 눈길을 끈다. SNS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무사귀환을 위한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에 동참하는 의미로 불교계는 '노란 연등' 달기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노란 연등'을 제작한 사람은 육근 8사단 팔정사 주지 지용 구윤호 법사로 알려졌다. 그는 "노란 리본을 새로 만들다가 불교적인 연등에 착안해 노란 연등을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이제 '치유와 평상심 찾기'에 나서자

대한민국은 지금 국상(國喪) 중이다. 불교는 슬픔에 빠진 희생자 유족과 실종자 가족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과 국민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정리=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 공감을 연민으로 바꿔 '사무량심' 염송



선업 스님  
팔행복지유센터 원장

이번 사건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스스로 무엇을 욕심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조금 더 욕심내고 한 것이 지금의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한 것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물이 거울에 비치면 뇌 속 뉴런이 반응하듯 우리 모두는 상황을 보고 공감하는 뉴런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사고를 함께 슬퍼하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아픔 속에만 갇혀 있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공감을 연민으로 바꿔야 한다. 이와 관련해 부처님께서 제시한 방법은 사무량심이다. 모든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과 미혹을 없애주는 자(慈)·비(悲)·희(喜)·사(捨)의 네 가지 무량심을 가질 때 나도 너도 치유될 수 있다. 희생자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이 없어야 할지, 아픔이 사라질지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자. '세월호 사건으로 가슴 아픈 모든 분들이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며 1시간에 한 번 정도만 마음속으로 염송하는 것이다.

이 마음을 거둬 되풀이한다면 희생자 가족들은 물론 우리 스스로를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다.

## 알아차림의 '정념'으로 사회주시 하자



서광 스님  
한국명성심리상담연구원장

군, 정치 등 여러 문제가 얽힌 세월호 참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문다면 좌절 끝에 무기력과 무감각에 빠지게 되고 만다.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와 공감 역시 중요하고 자숙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면 안된다.

선가귀감에서 서산대사는 비회비출(非懷非出), 즉 마음에 품지도 말고 밖으로 내

품지도 말라고 하셨다. 슬픔과 분노를 안으로 품어 너무 힘들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밖으로 표출하게 되면 감정의 소진만을 불러와 사건에 대한 빠른 망각으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월호 사건을 잊지 않고 계속 자각해나가는 일이다. 참사를 물고 온 원인을 하나하나가 시정될 수 있도록 사회를 주시해야 한다. 알아차림의 정념(正念)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실타래처럼 꼬인 사회문제에 대해 올바른 목적과 방법으로 화를 내야 한다. 냉철한 시선으로 사회의 아픔, 고통과 함께하면서 의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

## 애통 절제... 원칙 통하는 사회 만들자



최홍동 원장  
한별정신건강병원

절망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부터 살아있는 자는 희생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이 시대의 국민들과 국가를 위한 각성의 메시지로 읽고 사회가 맡아질 수 있도록 해결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

그러기 전에 세월호 참사는 이기적 욕망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자각해

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만 살고자 하는 이기적 욕망과 남을 살리고자 하는 이타적 살신성인이 공존해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천지 차이가 생긴다. 이기적 욕망은 지옥중생의 마음가짐이고 이타적인 삶이야말로 불보살의 삶이다. 이웃의 행복을 위해 내가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자세를 철저히 배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희생자들이 극락왕생하길 바라는 마음처럼 희생자 또한 남은 이들의 안위를 걱정할 것이다. 애통해하는 마음을 절제하고 죽은 이들의 의식이 부담없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고요한 마음을 모은다.

# 대한불교조계종 제 11 교구 본사 불국사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 주 지 성 타

관	장	종	상	재	무	종	천
학	장	덕	민	사	회	중	민
선	원	종	우	포	교	성	요
총	무	종	천	호	법	각	천
기	획	정	문	사	서	정	빈
교	무	정	수	회	계	성	명
				신	도	이	영
				회	장	성	숙

### 부설기관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 유치원
- 성림 어린이집
-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 대 중 일 동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1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

